



# 2010년 2학기 개강예배/기독인 부흥축제 "Now, Here!"

## 캠퍼스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1989년 가을, 서울대 대강당에서 학내 기독인들이 함께 하는 '경배와 찬양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예배를 계기로 서울대 기독

인들안에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지면서 1990년 2학기, 서울대 기독인 연합(이하 서기연)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2010년 가을 서울대 캠퍼스에서 부흥축제 "Now, Here!"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축제는 9월 27~29일까지 3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째날(27일)은 2학기 개강예배로서 드러집니다. 캠퍼스 내의 기독인(학생, 교수, 교직원, 캠퍼스 사역자)들이 모두 나와 주 안에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며,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28일)/셋째날(29일)은 은혜를 사모하고 캠퍼스의 부흥을 갈망하는 지체들이 주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짐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캠퍼스 내에서 과/단대 예배 모임이나 선교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독인들은 통계적으로 전체 학생의 3~4% 정도(400명 내외)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학생은 20%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포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사회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캠퍼스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캠퍼스에서 매 순간을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살아간다면 캠퍼스는 분명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부흥축제를 계기로 각자 부르신 과/전공/부서 영역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것에 대한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의 각 영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축제를 앞두고 서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 기독인들이 교회와 캠퍼스 생활이 분리된 채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연합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 캠퍼스 내에 반 기독교 정서가 점점 심해져 복음을 비웃고 기독인들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캠퍼스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 캠퍼스 내에는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과 헌신을 심고 있는 기독인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부흥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주께서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역사, 말씀으로 캠퍼스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서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홀로 높아지기를, 캠퍼스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2010년 서기연 대표 김미진(경제 05)

서울대 부흥축제 연락처 :

김미진(010-3070-0197)

E-mail : mjkim1224@gmail.com

지금, 여기,  가 있다?!

**9/27** <문화관대강당/p.m.6>: 기독인 한마당! "SNU Christian, Happy together"

-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고후 5:13-17)

경배와 찬양/마커스팀 인도

말씀/김용의 설교사(순회설교당 대표)

영상스케치/양희송 설배(전자공학과8기), 이하늬 설배(국악과02)

드라마/ "Everything"

특송/음대기독인연합

가슴뭉클함 만남과 교제...etc.

**9/28** <26동 대형강의동/p.m.7>: 지금, 여기, 복음! "말씀 앞에서다 I"

-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 12:1-3)

경배와 찬양/서울대찬양팀

말씀/김용의 설교사

기도함주회 I/학생, 교수, 교직원, 캠퍼스 사역자 연합

**9/29** <26동 대형강의동/p.m.7>: 지금, 여기, 우리! "말씀 앞에서다 II"

- 나는 누구인가/Who Am I?(베드로전서 2:4-10)

경배와 찬양/수요채플 찬양팀

말씀/고영삼 목사(『목적이 이끄는 삶』번역, 사랑의교회 글로벌 사역 담당)

기도함주회 II/학생, 교수, 교직원, 캠퍼스 사역자 연합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 그 곳에도  가 있습니다.

9월 마지막주, 월/화/수 서울대 캠퍼스에 특별한 가을밤이 찾아옵니다.

오셔서  를 확인하세요 :)

SNU Christian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요♡

### - 소식 · 의견 기다립니다 -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 김혜지 / 010-8244-4595

E-mail : hyeji.m@gmail.com

음기연 콘서트 후기

# 찬양을 위한 음기연 콘서트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다”



##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음기연의 공동대표인 저희는 여름방학이 접어들기 전부터 음기연 콘서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의 방향과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 각 과기독 대표들에게 연락을 하고 모이기를 힘썼지만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콘서트를 위한 회의에는 음기연 대표인 저희들과 과기독 대표 한명 총 3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 오지 않은 과기독 대표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매 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사역인데 다들 너무 협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기 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음기연 콘서트 회의와 중보기도 모임은 여름방학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 의견을 모으게 되면서 콘서트를 향한 기대는 점점 부풀어져 갔습니다. 기도모임을 준비하면서 음기연 콘서트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였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또 매주 중보기도 모임에 늘어나는 음기연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나 듣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사역이 기대함으로 가득 차는 것

이 아니라 성가신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여러 동역자들 통해서 위로해주셨습니다. 이래저래 말 못할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기에 그 도우심에 힘입어 감사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근심과 걱정의 눈물 보다는 평안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주셨고 더욱더 당신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콘서트는 두 대표의 행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무대였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고 도움의 손길들을 척척 붙여주셨고 각 과기독 지체들이 자유롭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신뢰함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나약한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불신의 마음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콘서트는 '아 정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세리(기악07) / 장하은(기악08)

## 청중의 입장에서 돌아본 음기연 콘서트



아주 감사하게도 나는 캠퍼스에서 세 번째 음기연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

내가 서울대 안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끔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또한 콘서트 준비 기간부터 캠퍼스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를 정하며, 콘서트를 함께 준비하게끔 마음을 모으고, 연주자를 섭외하고, 홍보를 하는 등 그 모든 작고 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깨어지는 경험을 한다. 사실 하나님의 개입은 그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상한 마음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시작으로 성실히 그 일을 해 나가신다. 그로인해 우린 아버지를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콘서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청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음대생에게 음악은 관객에게 평가 받는 자리이며 동시에 다른 음악을 평가하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연주하는 이나 듣는 이가 음악 자체를 즐기거나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음기연

콘서트는 우리의 중심의 찬양 가운데 기뻐 춤추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한다. 또한 우리의 중요 관객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연주자들은 믿지 않는 지인들을 자연스럽게 그곳에 초대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음악이란 수단을 사용해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전달한다. 그 결과는 아버지께 맡길 체 말이다.

이번 콘서트는 예전보다 프로그램도 탄탄한 편이었고 많은 출연진이 함께 했다. 물론 과도 다르고 다 같이 서로의 스케줄을 맞추기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진실 된 모습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런 어설픈 것까지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청중이신 예수님을 미소짓게 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또 한명의 관객의 입장에서 음악회를 생각해 본다. 음기연 지체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관객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감동을 경험했다. 그리고 동일한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음악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의 씨앗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리고 그것을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예수그리스도를 기대한다.

오주연(기악과 05)

### 애독자편지

서울대학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축복 받은 대학일 것입니다. 기독교수들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 각단과 대학과 과 별로 만들어진 기독인 모임들, 교직원 신우회!!

경영대 기독인 모임 자랑스럽습니다. 음대 콘서트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봤는데 정성을 쏟아 준비한 학생들의 열심에 비해 청중이 다소 적어 아쉬웠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연합에 더 힘을 썼으면 했구요, 밖에서는

캠퍼스내의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로 지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마이크모의 Proclaim전 벌써 22회가 되었다니 인내로써 이끌어온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7일부터 열리는 서울대 부

흥축제, 김미진 서기연 대표의 소망대로 캠퍼스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정이자 권사 / 기독교 대학촌 선교회

교·수·칼·럼

## 성숙을 꿈꾸며



대전행 KTX를 타고 앉아 창밖을 보니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시간을 못 이기고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열기를 한껏 삼킨 온갖 오곡백과가 성숙의 최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계절에 캠퍼스의 모든 주의 자녀들도 영적 성숙을 향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문득 영적성숙을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 가지 단어가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침묵, 흠, 위대함.

섰던 것처럼 침묵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죄악과 대면하여 믿음의 승리와 거룩한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대지의 흠은 우리의 원재료입니다. 기름진 땅이란 HUMUS라는 말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어휘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인간은 흠에서 왔다가 흠에서 살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은 마주하고 살면 인간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가 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흠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땅을 오염시키고 시멘트를 발라 흠 위에 살지 못하게 해버리는 현대 세계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문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오늘날 기독교청년들은 위대한 학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회, 위대한 선교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관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워낙 우리의 삶 자체가 '행위'와 '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니, 말을 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으면 대개 '멍 때리는' 시간으로 쉽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너 뭐하냐'는 핀잔이 정적을 깨우곤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 말 중심적(logocentrism)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왜곡되고 오염된 우리의 언어는 침묵으로 정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언어는 영락없이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침묵은 매우 다채로운 세계이며, 무한한 용납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긴장과 창조가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압제자에게 저항의 표시이며, 친구들에게 우정과 공감의 표시입니다. 침묵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만나는 공간이며 일상생활의 공허를 채우는 양식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허세와 독기를 빠지고 못 인생들의 삶의 허덕임을 체휼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새벽미명에, 갯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 행하

같습니다. 이 가을에 흠을 많이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침묵하면서 흠을 밟고 다니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꿈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설교한 짐 콜린스의 말대로, 오늘날 기독교청년들은 위대한 학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회, 위대한 선교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좋은 교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없으며, 또한 끊임없는 우리의 문제의 연속 속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조리다가, 불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위대한 생각을 하고 꿈꾸고 겸손하게 묵상하는 가을은, 다가올 혹독한 시련과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를 꺾어 버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비전의 사람, VISIONARY는 이 성숙의 계절에 만들어 질 것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이러한 주의 청년들이 사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박동열 교수 / (불어교육과, 2010 서기연 지도교수)

## ■ 경영대 기독교인 연합



안녕하세요.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줄여서 이하 경기독)입니다. 저희는 경영대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모여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정기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영대에 있는 기독교학생들이 모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주로 경영대의 기독교인 교수님들, 서울대의 기독교인 교수님들이 전해주시며, 여러 곳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번갈아가며 전해줍니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경기독의 지도 교수님이신 주우진 교수님께서도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어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 외 많은 부분에 있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님의 허물없는 모습에 경기독 학생들은 더 단단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 매년 여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10여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벌써 같은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지 13년이 되어가고 있어, 여름 단기선교는 경기독의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 한차례 있는 단기 선교 외에도 경기독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독은 매학기 개강을 피자파티와 함께 맞이합니다. 피자파티에서는 매학기 첫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부담 없이 같이 피자를 나눠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번 MT를 가며 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며, 매년 1학기에는 '흠커밍 데이'를 개최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방학 때 있는 신입생들의 입학고사 날에는 경기독 학생들이 따뜻한 커피와 차를 준비해 학부모님들께 나누어 드리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열정과 꿈이 넘치는 공동체인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배유미 / 경영 07  
정힘찬 / 경영 06  
snujesus.cyworld.com

## 서울대 찬양팀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울대 찬양팀'입니다. 저희 서울대 찬양팀은 선교단체와 단체소속을 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희의 주된 사역은 기독교인 OT, 서기연 개강예배와 종강예배 때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 서기연 행사 중 필요한 사역이 있으면 함께 돕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지방에 내려가 중고등부 수련회나 수요예배 등

에서 찬양사역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 정기 모임은 월요일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악기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괜찮으니 함께 예배하고 싶은 분들 주저 말고 연락해주세요 ...

김옥연 / 수리07 (010-5288-4644)  
club.cyworld.com/SNUWorshiper

서울대학교 미대 크리스천 모임

# 제 22회 프로클레임 展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프로클레임전이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관악 캠퍼스 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땀 흘려

전시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의 섬김과 선배들의 변함없는 전시참여에서 어느 해와 다른 뜨거움이 느껴진다.



〈프로클레임 전 오픈예배의 모습〉

프로클레임, 하나님의 세계를 미적으로 형상화하여 선포한다는 미대 크리스천 모임의 전시는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서울대 캠퍼스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발걸음을 작품 앞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미술이라는 분야의 특성 상 제각기의 개성이 표현된 작품들이 따로, 또 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란 여의치 않은 일이다. 또한 학부1학년에서부터 대학원생, 졸업생, 교수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의 전시로써 예술과 신앙을 한 묶음으로 내보인다는 것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작업을 통한 예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전시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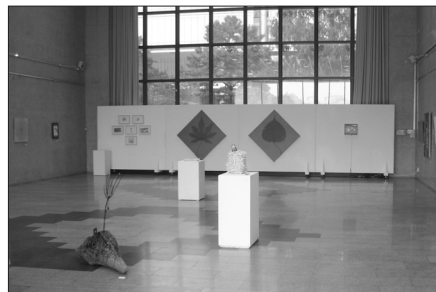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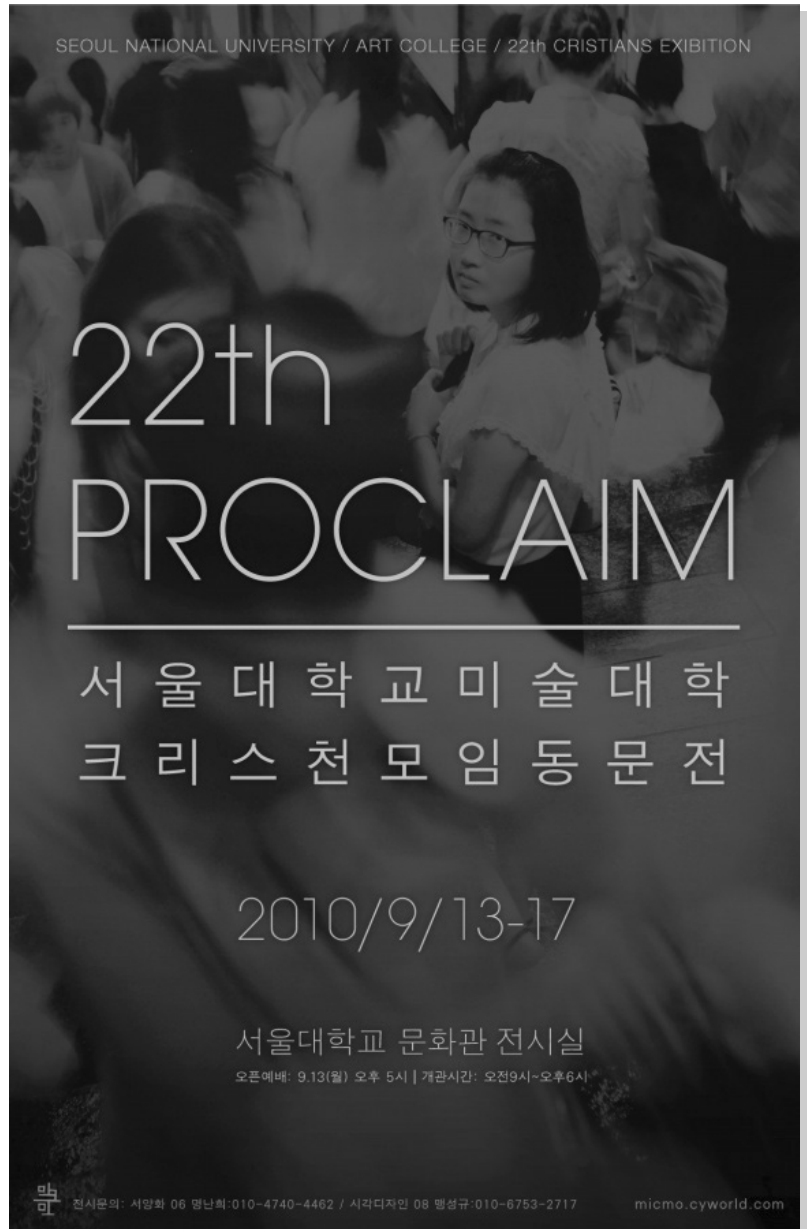
젊은 날에 찾아온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대 크리스천들의 마

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고, 함께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며 전시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의 주제에 맞추어 올 해의 전시를 기획하고 각자의 목소리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클레임은 고린도후서 6장 1-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이번 프로클레임 전시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전시를 통한 선포와 고백이 서울대 캠퍼스의 같증을 풀어주고 세상을 향한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한다.

임현경 (동양화 01학번)



〈전시 전경의 모습〉



〈관람객 앞에서 작품 프리젠테이션〉

## 서울대학교회 예배안내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학교회가 있습니다!

- \* 서울대학교회 예배 안내
- 오전 11시 국제예배
- 오후 1시 반 주일대예배(대학원예배)
- 오후 4시 대학부예배
- 장소 : 26동 대형강의실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이 가을에  
서울대학교회로 초청합니다.

문의: 김수봉 목사 (010-4240-3858)

## 서울대기독인연합 북한아이껴안기



언제나, 어디서나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던 저로서는 '북한아이껴안기' 모임이 참으로 그리웠던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혼자서는 주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새 용기를 얻는 그 자리를 소개합니다.

2학기에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50분간 통일, 평화, 북한을 주제로 기도모임을 가집니다. (장소는 주로 두레문예관 303호를 이용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새터민 청소년/대학생들에게 주1회 과외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9월 7일(화)부터 2010년도 2학기 북한아이껴안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대표 연락처 :  
유종은 (경제04, 010-5101-4224)  
클럽주소: northug.cyworld.com

단기선교보고

2010 Kazakhstan Missionary Trip



For the past twelve years, Professor Chu Wujin and a group of students and alumni from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made a yearly missionary trip to Kazakhstan and Uzbekistan. This year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strict religious regulation in Uzbekistan, the trip was made just to Kazakhstan, where the majority of our work was based in Immanuel Church in Shymkent (the capital city of South Kazakhstan Province).

I was fortunate enough to be part of the team this year and it was just as rewarding as I expected it to be. Our main purpose for being there was to help Immanuel Church and its regional start-up churches with its various works. This ranged from helping out with the young people with activities and games to praying for the sick and weakly.

The immediate difference I felt upon arriving in Kazakhstan was most definitely the economic standards of living. Particularly in the smaller churches we visited in the remote areas,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very few of the luxuries we so easily take for granted. Even still, the Church members we met were possibly the most hospitable group of people I had encountered in my life, where they wouldn't hesitate for a second to make us feel welcome and at ease. We visited several churches and every time there would be a large number of members who were sick and needed prayer. This was personally the first time I've ever prayed for such a large number of people at one given time and to be honest, it was quite intimidating. Surprisingly however, despite hardly knowing these people, I felt a great attachment to them and something in my heart really longed for them not only to get physically better, but for their souls to truly find God, which made the whole process easier. I really sensed the Holy Spirit being with us throughout the whole journey, and indeed we all witnessed God work wonders as he healed several members.

It was whilst working and interacting with the young people though that I truly sensed a deep attachment. Although many of the children being unable to speak English and our virtually nonexistent knowledge of Russian or Kazakh prevented us from having the lengthiest of conversations, we were fortunate enough to have a few girls to interpret for us. It was here where I was disheartened to learn that many of the young people had very little hope in their futures. Because many of their parents had lost their jobs, or were unemployed perhaps because of an illness, some felt there was not worth much doing in life once they finished school. This was particularly heartbreaking for me to hear, and is something I will continue to pray about. I was however, very happy to hear that although many of their homes were far away from Church, they would still make the effort to come every week to hear the gospel, which is definitely something to praise the Lord about.

Looking back at the trip overall, I think the most impressionable impact made on my life was witnessing the missionaries give their entire lives for the work of God. Although Kazakhstan officially allows 'freedom of religion', there is still a vast amount of repression. We learnt from Pastor Kim (the Senior Pastor of Immanuel Church) that every week a KGB spy would listen in on the sermon and report back to the officials if anything too radical was being preached. There are also a large number of self-identified practicing Muslims particularly in the southern part of Kazakhstan, where even we could sense the spiritual tension. Some of the missionaries have to travel 4 to 5 hours to get to their respective churches with their families, yet even with these challenges that they were faced with everyday; it just amazed me to see how happy they were purely in serving God and doing His will. The world may look at them and pity their doings, yet I could really sense the Holy Spirit working in their lives, and knew God would enrich them with His blessings. I saw God's grace through their lives, and hope to live my life like theirs, following in Jesus' footsteps.

By Miriam Soo Young Lim. (경영대 08학번)

# “땅끝까지 이르러

## 2010 여름방학동안 형제자매들의 감증을

캄보디아 단기선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다녀온 양소라라고 합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하자면 캄보디아 단선은

정말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약 한 달간 해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한 일은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예수마을교회의 사역을 함께 돕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는데, 3일간은 예수마을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대학에서 캠퍼스 전도를 했고, 3일은 그들이 준비한 수련회 캠프에 함께 참가하여 활동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일에는 예수마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마을교회의 지교회들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캠퍼스 전도를 가는데, 우선 제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그걸 즐기는 편이어서인지, 예수마을교회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신이 나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 친구들도 너무 적극적이고 밝고 활달해서 더 좋았습니다. 캄보디아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모국어는 캄보디아어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수준인데, 캄보디아어로는 절대 연습을 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영어로 말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살짝 떨리긴 했는데 이 곳 역시 한류열풍이 불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길을 지나가도 많이들 관심을 보이구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보이면 옆으로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 같은데 캄보디아에 가서는 전도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수록 영어도 잘 구사하게 되었고 같이 팀을 이룬 캄보디아 친구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다가가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들 복음에 열려있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 두 번 전도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3일 간 계속 캠퍼스 전도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저 즐겁고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캠퍼스 전도 때 만났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받아뒀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친구초청예배에 와보지 않겠냐고 권유도 하고 캠프에 오지 않겠냐고도 했었습니다. 캠프를 갔는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정말로 그 자리에 와 있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

정말 저에게 있어 캄보디아 단기선교 10일은 always 행복,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도 더 신실하게 다가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는 훨씬 더 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 10일은 제가 많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가게 하실 때부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쪽 아이들과도 친해져서 내년에도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다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양소라(가족아동 09학번)

# 내 증인이 되라.”

## 복음을 들고 세계로 떠날 여기 소개한다.

### 키르기스스탄으로 전도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07학번 김혜민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예수전도단(YWAM)의 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UDTS; University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에서 제자훈련을 받았고, 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 올해 7월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있으면서 수 차례의 전도여행을 경험했지만, 기나긴 훈련을 맺으며 다녀온 이번 전도여행은 제게 보다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각별한 전도여행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누어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훈련을 받는 내내 제 안에는 조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 스스로에 대한 실망, 아무 것도 못한 채 훈련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 등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무언가 해내야 한다는,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전도여행까지 이어져서 저는 긴장한 채 키르기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선교지에 나온 만큼 훌륭한 사역을 해내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던 제게 하나님의 ‘여유로움’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키르기스스탄의 자연을 통해, 현지인들과 함께 드리는 소박하고도 따뜻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저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 새삼스럽고도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잔뜩 경직되어 무언가 이루어 내려던 모습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온 세상을 빛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매일 더욱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고 나자 자연스럽게 사역과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정말 즐겁고 가볍게 보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누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현지의 사역자들과 학생들에게 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나도 건강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 제게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건강하게 받고, 또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함으로써 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림으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혜민(국어국문학과 07학번)

### 단기선교보고-몽골선교



부끄럽지만 몽골로의 단기선교는 부모님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2주가 남은 시점이었기에 불가능 할 거라며 단순히 무시하는 것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조금씩 단기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기대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큰 은혜를 보여 주신 하나님이 몽골에서는 더 큰 사랑을 제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새 제 마음에 잡혀있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간사님에게 연락을 하였고 놀라운 속도로 여권의 연장과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 몽골 단기선교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참가를 정하게 되었기에 사실 기대를 따른 그만큼의 준비와 각오는 부족하였지만 남은 기간 동안 몽골에서 하게 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들 역시 점차 채워졌습니다.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번째 큰 사역은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5일 동안 8~10명 정도의 같은 몽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수업입니다. 특히 마지막 이들은 사영리를 전하고 우리가 준비한 공연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일이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사실 비효율 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시간동안에 길에 나가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사영리를 읽어주는 편이 더 많은 영접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업들을 해나가면서 이 생각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우리에게 말도 사실 잘 안 통하면서 정말 친해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질게 물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지를 기대하게 되었고 수업은 더욱 열심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영리를 전하는 낯써 전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Most’ 라는 영상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슬픈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도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그들에게 사영리도 못 전할 정도로 울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시간에 맞춰 진정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한 반 학생들에게 사영리를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들 모두가 영접하였고, CCC와 지속적인 연락으로 주를 더 알아가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을 실컷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업이 끝나고 여러 준비해 온 공연들과 스킷을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은 큰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끝에 그들에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 줄 때가 다시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생 중 한명이 일어나오며 같이 노래를 불렀고 더 다가와 저를 안아준 것입니다. 곧 다른 선교팀과 학생들도 하나씩 포옹을 하였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축복을 마음 깊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바로 노마드 사역이었습니다. 초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틀에 걸쳐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첫째 날 저는 한 가정의 어린 아이와 다른 가정의 세 형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이곳에서 아이들과는 한국어 수업 때 함께했던 학생들만큼 친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맘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밤에 예수영화 상영을 하였을 때 낮에 보았던 어린 아이가 와서 영화를 열심히 본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예수 영화를 본 후 모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사영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기도 팀을 나누는 바람에 영화를 열심히 보았던 아이에게는 사영리를 전해주지 못하였고 대신 세 형제와 처음 보게 되는 한 어른 분에게 사영리를 전하였습니다. 보통 사영리를 전하였을 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가 사실 쉬운 일임에도 한 형제와 어른 분이 그와 같이 거절하자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성공적인 전도임을 기억하며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초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이준(전기컴퓨터공학부 10학번)

### 특별기획연재(3)

#### 제 3 장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2000년 전의 제자와 오늘의 제자 사이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 덴마크 사람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직접적인 제자(Jünger erster Hand)와 간접적인 제자(Jünger zweiter Hand)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점을 즉시로 깨닫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직접적인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그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능력 면에서도 오늘날의 우리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영향들도 똑 같은 권리를 요구하며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된다.

또한 후세 사람들에게는 스승의 말과 행적 속에서 기능했던 것들로, 당시에 존재한 많은 것이 낯설기 때문에, 스승에게 접근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그 동시대의 사람들 보다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리하르트 바그너는(Richard Wagner) 살아 생전에 빌로(H.v. Bulow) 리히터, 마틸데 베젠돈크(Martilde Wesendonck) 말피다 폰 마이센부크(Malvida v. Meysenbug) 등 정말로 그를 신처럼 받들었던 추종자들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었다. 그의 부인 코지마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에게 감격한 추종자들은 그가 죽을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그와 직접 접촉했던 친구들이나 학생들보다 강할 수 없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대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들 자신은 저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한 번도 가져 볼 수 없었다. 그들이 가장 큰 감격을 누릴 때조차 그 대가와는 일정한 간격이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그 대가라면 아마 거절하였을 새로운 많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질킬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점점 대가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경우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오늘날 우리들은 직접적 제자라는 의미서는 더 이상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당시 제자들 이상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 직접적이라는 것은 결코 어느 것으로도 보상될 없는 것이다.

2000년 이란 세월이 인류에게 아무런 흔적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다, 세상은 당시와 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이 이 변천된 시대에 즉시로 전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 나사렛 예수를 숭배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의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신약성서의 기독교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직접적인 것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옳다. 사람들이 위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느냐 혹은 자기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느냐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말이란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그 스승과 같은 환경에 살 때, 많은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북쪽 지방에 사는 제자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가령 시실리나 그리스 당에 와 볼 때 마다 이점을 느끼는 것이다. 노르웨이 주교 페어그라프(Verggrav)는 언젠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썼다.

시실리에 있으면 예수 당시의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 든다. 당나귀들이 성문에 매여 있고 무화과나무들이 자라며 목동들은 수많은 양떼를 이리저리 몰고 다닌다. 조그마한 도시의 시장에는 당시와 같이 한가한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고 포도원이 있으며 저녁에는 아낙네들이 우물에 갔다가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모든 것들이 주가 여기계신다고 속삭이는 것 같다.

최북단에서 온 사람이 이러한 모든 것을 본 후에 어떤 모습을 그려가며 신약성경을 읽게 될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무화과나무도, 씨 뿌리는 사람도 본적이 없고, 혼인날 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마중 가는 모습도 상상할 수 없는 유럽이나 미국 대도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 없이 다가오겠

는가? 철저히 팔레스틴에서 살아보기 전에는 예수의 말씀들과 비유들이 바르게 이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적어도 지금 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조만간 사정은 달라 질 것이다. 왜냐하면 팔레스틴도 빠른 속도로 미국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아낙네들이 빵굽는 가마를 달구는 원시적인 연료 밑에다, 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소금 덩어리들을 넣고, 몇 시간 후 열을 높여주는 모든 성분이 다 빠져 나간 후 거리에 버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때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워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간과 되고 있다. 주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끌어 오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직접 눈으로 그려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의 사역의 배경이 되는 환경을 아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할

어야한다. 이러한 일은 수세기 후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주와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은 나사렛 예수가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동렬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신이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단지 직접적인 제자들 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다. 그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계셨던 그 만큼이나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진실한 제자라면 누구나 살아가는 중에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직접적인 제자들과 동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주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바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신다.



지라도, 실제적으로 여전히 그의 복음의 한마디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것으로는 별로 이해 할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괴테의 시종이 괴테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이 아닌 것 처럼 말이다. 매우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볼테르(Voltaire)가 프리드리히 대왕의 상에서 2년간이나 같이 식사를 했으면서 그의 가장 깊은 기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복음서들은 여러 곳에서 직접적인 제자들조차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그의 말씀하 신바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많은 경우 주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를 깨달았던 것이다.

외부적인 인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에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인상이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 역시 중요하지 않다. 인상이란 쉬 사라지기 마련이다. 진리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야만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표면적 인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영은 영으로서 감동되

바로 이점을 깨닫고 있느냐가 나사렛 예수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이 팔레스틴 지방을 여행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주로 모시기를 원했던 나사렛 예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여행은 하나의 커다란 환멸로 끝나고 말았다. 즉 그는 예수를 사회 사상가로 생각했었고, 독일의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그렇게 묘사했었는데, 팔레스틴의 비참한 환경, 형편 없는 도로 사정, 잘못된 사회적 환경들을 목격하게 되자, 그는 예수가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찾아 왔다. 그 후로부터 그는 주와 그 자신 사이에 어떤 단절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단절은 결코 다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에게서 독특한 점 즉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개혁의지를 찾은

수 있을 것으로 믿는데 원인이 있었다. 인간적인 개혁의지는 물론 수세기를 넘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20세기의 제자가 30년대의 제자에 비해 결단코 불리한 조건에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다니셨던 나사렛 예수가 다른 교사들과 비교될 수 있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최후의 그리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유대인이 말했던 주요, 자기 자신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기까지는 점진적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선 그가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희생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추측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분명해졌다. 그 때조차도 그들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간접적인 제자는,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사람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역사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 예수를 따르는 중에 자신의 삶의 완전한 실현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수세기를 넘어 일체를 형성한다. 그 위에는 수세기를 통하여 서로 분리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이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카알 대제 시대의 프랑크 제국 사람들 옆에 갑자기 서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우리 시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둘 다 예수의 제자라면, 거기에는 우리를 곧 바로 결합시키는 끈이 발견된다. 우리는 같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또

## 오토 디벨리우스 제자들

예수님 그 때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제자들

말하자면 복음서를 뒤에서 읽는다.

그들은 산상설교를 하신 분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온다. 또한 그들은 200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대적한 모든 세력들에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00년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완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지한 자세로 진리에 대한 탐구에 열정을 다 바치고도 그 반대의 결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신도 끈질긴 생명을 가질 수 있으며, 진리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파악되기

한 우리는 모든 제자들이 그를 따르면서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은 수세기 동안의 시간이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쇠사슬과 같다. 이 사슬로 연결된 모든 제자는 동일하다.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가 없다. 처음과 끝이 없다.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없다. 제자들 사이에는 옛날과 오늘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는 명백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다.

편집자주 : “제자들”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하게 된다.  
Otto Dibelius가 쓴 Die Jünger(1941)를 유은상, 이영록이 번역하여 펴낸

“제자들”(1990, 대학촌)에서 옮겨 실은 것이다.

반 교회적인 파시즘과 불세비즘의 유럽 시민전쟁적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됨의 의미를 새롭게 한 이책의 내용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사·칼·럼

## 대문 앞 채송화 短想

우리 집 대문 앞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 직경이 네 뼘 되는 큰 화분 3개를 놓았습니다. 각 화분마다 가운데에는 플라스틱 작은 대야에 물을 담아 부레 옥잠을 심었고, 그 둘레에는 채송화를 심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햇볕이 비취는 곳에 있는 채송화는 잘 자랐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뒤쪽에 있는 채송화는 썩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앞의 가지를 잘라 뒤 쪽에 심고 또 심었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했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뒤쪽에는 채송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주 전 큰 화분 자체를 돌려놓아 잘 자란 채송화는 뒤쪽으로 가게하고 텅 빈 앞쪽에 다시 채송화 가지를 잘라 심었습니다. 며칠 뒤 앞쪽에 채송화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뒤쪽에 있는 채송화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불현 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앞쪽에 있던 채송화도 지 금껏 나름대로 희생을 했다. 여러 차례 자기 가지를 잘라 주기 까지 했다. 잘려진 가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에서는 여전히 채송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돌려놓아 양지 별을 양보하자 그렇게 큰 희생하지 않고도 앞 뒤 모두 골고루 잘 자라네 그려. ^^’

우리 관악인도 어쩌면 화분에 심겨진 채송화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본다면 기독교인은 양지 별에 심겨진 채송화, 예비 기독교인은 음지에 있는 채송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희생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반에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계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기독인은 과기독인대로, 선교단체 리더들은 또 그들대로, 기독교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자기를 포기하고 정말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 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입학할 때 25%의 기독교인 분포도는 졸업 시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 듯 하고, 5% 미만의 종교 동아리 관심도조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자기 성찰이 없이 우리의 양지를 고수하는 한, 우리 기독교인은 관악에서 점점 더 계도화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맹목적 자기희생과 자화자찬보다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지에서 음지로 자기 위치를 전환하는 이런 종류의 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연인 연회에 비기독

인 몇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그런 전도에서, 그들이 주연인 자리에 우리가 찾아 가는 새롭고 과감한 새 전도의 패러다임 말입니다. 선

교사님들이 혈혈단신 문화도 종교도 다른 오지로 찾아가서 한 알의 썩는 밀이 되듯이, 우리도 양지를 버리고 소명감을 갖고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 녹아드는 소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을 ‘또래 캠퍼스 선교사’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또래 선교사’들이 각 과반마다 세워질 때 10년 뒤 관악의 영적 지형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대문 앞 채송화를 바라보며 관악 캠퍼스에 있는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 진정 모교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난크리스찬 친구들이 “친구야, 너 때문에 대학시절,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라고 고백할 그 날을 꿈꿉니다.

변형용 목사(CMI)



..... 단대 기독교인 모임 소식 .....

■ 사회기연

무더운 날씨와 함께한 여름방학~다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초췌한 모습으로 밤을 지새우던 기말고사가 끝나고, 기뻐하며 방학을 맞이했던 기연 지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방학이 끝나고 말았네요 ^^;; 지체님 모두 학업에 지쳤던 영육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알차고 복된 시간 보냈으리라고 믿어요!!

저희 사회대 기독교인연합(이하 사회기연)은 사회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로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대 및 캠퍼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매주 금요일 정기모임으

로 예배와 세미나를 격주로 진행하며 사회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사회대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게 되는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사회기연은 앞으로도 룸에서 매일 묵상모임, 월요일모, 금요일예배/세미나모임 등 꾸준한 활동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회기연 안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새내기, 재학생 모두 사회대생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김동환 / 경제 07 (010-2561-0094)  
http://sschrist.cyworld.com

■ 인문기연

여러분~안녕하세요!! 인디언S입니다 :)

인기연은 이번 학기에도 매주 목요일 점심 때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이나믹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그룹 모임, 기도체인, 잠포 (잠을 포기하는 모임 ^^)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아웃팅!!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인기연들은 이미 한 가족이지만, 앞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종하는 인기연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에는 두 번의 여름 아웃팅이 있었습니다. ^^ 함께 볼링을 치고 보드게임을 하면서 방학 때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일학기에는 풋풋한 10학번들 덕분에 모임이 정말로 풍성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스러운 08학번 선배들이 새내기를 케어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인기연의 또 하나의 새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09들이 스텝으로서 계 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쉽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캠퍼스에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보낼 시간들이 매우 기대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기연이 되겠습니다.

정기모임 시간: 목요일 12:30PM~1:40PM  
장소: 14동 지하  
Everyone is welcome!~ ^^

김인아 / 영어영문학과 09 (010-6880-9208)  
club.cyworld.com/snuindians

■ 마이크모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대 크리스천 모임입니다. ^^ 미술을 전공하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고, 잠포(잠을 포기했다는 뜻)라는 MT와 파인애플 장터, 매년 열리는 프로클레임 전시회, 그리고 각종 소품이나 전시 관람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중 마이크모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프로클레임(PROCLAIM)전은 학부생부터 졸업하신 선배님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동문 전시회입니다. 올해 프로클레임이 22회째 되었습니다. 전시를 앞두고 학기 중에는 파인애플 장터를 통해 전시 기

금을 마련했으며 방학 동안에는 총 5번의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시 오픈 예배는 13일 오후 5시에 있으니 오셔서 함께 전시를 빛내주세요.

마이크모 정기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0동에 있는 마이크모 룸에서 있습니다. 수위실 왼쪽 계단 아래의 핑크색 문방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미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명난희 / 서양화과 05 (010-4740-4462)

■ 법기독

법대 기독교학생회는 법학부에 소속된 기독교학생들의 공동체입니다. 권오승 교수님과 이효원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로 계시고, 고시촌선교회 신부호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법기독 구성원들은 대부분 법조계에 비전을 품고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입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며 법학부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를 끝으로 학부 법기독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대 크리스천들의 하나됨을 위해 이번학기에는 로스쿨 법기독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선배들이 눈물로 이

■ 음기연

음기연은 음대 기독교인 연합으로 매월 예배와 아침 큐티 모임을(8시 음대 카그) 가지고 있습니다. 관기모, 현기모, 피크모, 카타콤, 이크모, 작기모가 있으며 각 과기독 대표들이 세워져 과기독 모임도 세워져 있습니다. 현기모와 피크모는 아직 모임이 없으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이번 여름방학기간 9월 2일 늦은 6시 음기연 콘서트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다'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모여 기도회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청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

■ 자연대 기독교인 연합

안녕하세요, 자연대 기독교인 연합입니다~ 저희 자연대는 5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고, 과별로 기독교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부에서는 "생기모(생명과학부 기독교인 모임)"가, 수리통계학부에서는 "크리스마스(Christmath)"가, 화학부에서는 "하연(하나님의 연금술사)"이 모이고 있어요. 이름들이 예쁘죠? ^^

생기가 넘치는 생기모는 매주 주중 오후 5시에(아직 요일 불확정) 정기모임을 갖고,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큐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엠티가 매학기 있고요, 지난학기에는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공정거래물품 장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처럼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수요일 점심시간(12시)마다 식사교제 겸 정기모임을 갖고 있고, 방학 중 한 번 정도 엠티도 가요. 09, 10학번 친구들이 많은 하연은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합니다.

아쉽게도 물리천문학부와 지구환경과

끌어온 모임을 저희 대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찢을 때가 있고, 꿰매 때가 있습니다. 찢으시는 분도, 꿰매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비록 학부생 모임은 없어지지만 앞으로도 로스쿨 법기독 공동체를 통해 법대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각박한 학교 안에서 소망을 나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최영재 / 법학 04 (010-2640-4326)  
club.cyworld.com/snulawchrist

배하는 시간으로 올려질 계획입니다 ^^

2학기도 동일하게 월 예배와 아침 큐티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음대를 품는 기도와 각 지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경건의 시간들로 아침을 깨우며 월 예배는 각 과기독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장하은 / 기악 08(피아노 전공) (010-5092-2328)  
오세리 / 기악 07(트럼본 전공) (010-7741-2129)  
club.cyworld.com/snuconcert

학부에는 현재 과기독 모임이 없는 듯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학부제 탓에 과를 넘나드는 인간관계가 많지 않아서, 자연대 단위의 모임도 없답니다. π\_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대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일 11시마다 학관416호, 서기연 룸에서 자연대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으니, 마음 있으시면 누구든 편하게 와주세요~

어려운 전공공부와 정신없는 대학생활 가운데서 서로 힘을 얻게 해주는 우리의 작은 모임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라가는 2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연대표) 김소영 / 화학08 (010-8121-3021)  
(생기모대표) 지율 / 생명09 (010-2507-6912)  
이원동 / 생명06 (010-6680-5288)  
(크리스마스대표) 심덕원 / 수리08 (010-4714-1543)  
(하연대표) 백지수 / 화학09 (010-3082-0928)

■ 농기연

안녕하세요 농생대 기독인 연합 대표 이재혁입니다.

지난 학기에 농기연은 매주 금요일 12시에 생명관 1006호에서 농생대 지체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생대에는 단대 특성상 이룸도 외우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과들이 있는데요(^\_^;) 아직 과 별로 기독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기연이 단대 모임에서 더 나아가 과기독 혹은 학부기독인 모임

으로 하나 되어 캠퍼스 이곳 저곳에서 기도드리는 음성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농생대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학기에도 농기연 모임은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지속하려 합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농생대 지체분들께서는 저에게 부담없이 연락 주셔서 농생대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이재혁 / 환경재료과학 09 (010-8570-0872)

■ 예수전도단

반가와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운 놀이터 서울대 예수전도단(YWAM)입니다 :) 유난히 무더웠던 2010년 여름,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는 2주의 시간 동안 MC(Mission Conference)와 국내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His Kingdom Come" 이란 주제로 진행된 MC에서는 캠퍼스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초청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반응하여 주님의 나라가 캠퍼스와 열방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부산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떤 팀은 공연 예술로 어떤 팀은 워십댄스와 드라마로 또 어떤 팀은 땅밟기, 그리고 섬김으로 부산 땅에서 예수님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

이번 2학기에는 또 다시 저희에게 특별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인 친초 (친구초청잔치)와 겨울 해외전도여행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시간, 그리하여 좋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더 알고 사게 될 그 시간으로 심장이 쿵쿵쿵 뛰지 않으세요? 이제 시작된 2학기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에 더욱더 사로잡혀 예수님으로만 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해요 :)

김상미 / 교육08 (010-2999-3736)  
ywamsnu.cyworld.com

..... 선교단체 소식 .....

■ CMI

\* 2010년도 여름 학기 소식

여름방학은 팀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더그룹인 핏볼 1기 팀은 문화투어를 했습니다. 연극, 음악, 영화,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함께 공연들을 관람했습니다. 10학번 핏볼2기 팀은 6.21일~25일까지 여름 D.M.T.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 상주, 안동, 포항, 경주를 거쳐 여수 애양원(손양원목사님 순교기념관), 지리산 노고단, 전주를 거치는 전국투어였습니다. 또한 8월 15일~18일까지 강원도 아야진 리조트에서 여름 수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을학기부터는 매주 목요일 5시에 학관 421호에서 TOEFL voca test와 Free talking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가을학기 계획

가을학기에는 눅 5:1-11 말씀("깊은 데로 가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에 기초하여 한명의 학생 리더가 한명의 후배에게 1:1로 성경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지난 1학기 때부터 1:1 성경선생으로 준비를 하여 이제는 학생리더들이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성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형제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이노니아(공동생활)가 더 활성화되고, 가을에는 자매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7일 <캠퍼스사역훈련원 : Campus Ministry Training Center>의 개원예배를 시작으로 캠퍼스 현장 리더양육에 더 힘을 쓰고자 합니다.

송원석 / 수리07 (011-9287-8905)

\* CMI 영어분과 소식(DBS 영어회화)

비기독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어회화 반은 영어로 교류하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학생 리더들이 번갈아가면서 영어회화 시간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에서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력 면에서 더욱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 가

■ UBF

안녕하세요.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한 UBF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7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 동안 여름 수양회를 가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는 "The Bible Expo 2010"에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강 준비에 힘을 더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매주 Group Bible Study 모임과 기도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16일에는 Bible Academy가 있어 선배들의 메시지와 대학생활체협기를 듣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동안 말씀공부를 해 오던 학부생들과 새롭게 초청 받는 분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8월 27일과 28일에는 개강을 앞두고 MT 수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7일 천로역정 심포지움에서는 존 번연이 지은 "천로역정" 책을 읽고 각 20장을 각자 준비한 모노드라마, 애니메이션, 인형극 등으로 발표하며 크리스천 순례자의 여정을 그려봅니다. 28일에는 인천에서 열리

UBF는 성경 말씀을 선배와 1:1로 배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동아리입니다. 2010년 2학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김현지 / 약학과 07 (010-5212-6170)

■ 관악 ESF

샬롬!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만든 사람들, 관악 ESF" 입니다.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의 약자로, 한손에는 복음, 한손에는 전공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ESF는 연합 캠퍼스로서, 관악ESF에는 서울대 뿐만 아니라 경인교대, 숭실대, 총신대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관악 구청 맞은편 ESF관악지구 회관에서 모든 캠퍼스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일대일 성경공부와 캠퍼스 별 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양육과 제자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로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전국 여름수양회 및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신약을 통독하는 모임, 신통만통(신약통독 만사형통)을 가졌고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과 동역훈련을 함께 가졌습니다. 올 해가 ESF 관악지구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기념 수련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2학기 중에도 한 차례 더 행사를 가지게 될 계획 가운데 있고요, 2학기는 남아있는 지체들을 더욱 제자로 세우기 위해, 캠퍼스에서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더욱 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ESF를 더욱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사랑과 섬김이 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맹성규 / 시각디자인 08 (010-6753-2717)

■ SFC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2010년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SFC 운동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보람찬 방학을 보내고 이제 다가올 새 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학 때는 저희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방학하자마자 떠났던 "SFC 지리산 종주 Vision Trip!",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기에 힘들었던 산행이었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고, 더욱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출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방학 중 전국의 모든 운동원들이 모이는 '전국 SFC 대학생 대회(호서대학교)' 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4박 5일간 말씀에 푹 잠기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학기부터는 새로운 임원진이 SFC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후배님들이 SFC의 가치를 잘 이어받아 캠퍼스와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 흥 / 독어독문학과 06 (010-4106-6906)  
http://snusfc.cyworld.com

■ IVF

안녕하세요\_\*

저희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꿈꾸는, 한국기독교학생회 IVF입니다!

지난 여름, IVF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열방으로 예수의 길을 가다!' 라는 주제로 6/28~7/3 동안 남서울 지역 IVF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3년에 한번 있는 선교수련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향해 우리 또한 마음을 품고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학기 중에도 IVF는 매일을 중보기도로 열어간답니다. DPM(Daily Prayer Meeting)에는 캠퍼스, 사회, 선교 등을 주제가 담기며, 방학 중에는 매일 오전11시, 학기 중에는 월12시, 화-금 매일 오전8시에 함께 모여 중

■ LDI

살롬! 서울대 LDI와 한 학기 동안 함께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LDI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예수님 동아리입니다. 대학생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화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토요훈련 등을 통해서 지체 간의 화목과 영육 간의 강건을 격려하며 서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말씀양육, Q.T와 전도 모임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LDI는 4월 서기연 대의원 회의에서 준

■ 네비게이토

방학을 즐겁고 의미 있게 잘 보내셨나요? 저희 네비게이토 형제자매들에게는 이번 방학이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답니다. 방학을 시작하며 가진 여름수양회를 통해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의 동기와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방학 기간에도 깊이 있는 성경공부, 암송 그리고 귀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으로 주님을 알리게

■ CAM

안녕하세요! CAM의 여름 방학 소식입니다.

CAM에서는 방학 중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강원도 춘천시 남서면 소재)로 2010년 8월 17일~20일(3박 4일)에 "The Holy CAM-Ping"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방학 중 목요일

보합니다.

2학기의 IVF를 들여다보면\_\*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반, LGM(Large Group Meeting)으로 모여 함께 예배 하구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열린 모임인 B1 모임이 있어요, 레크레이션과 GBS 그리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답니다:) 환영해요\*\_\*

-매주 4-5명의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성경을 연구하며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피어나는 이 곳에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 ^

앞으로도 계속되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IVF ♥

김선영 / 생물교육 07 (010-4737-4586)  
정순형 / 인류 07 (010-9137-8665)

회원으로 인준되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7월과 8월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예비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8월 수련회는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진정한 부흥을 위한 개개인의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죄들을 고백하고 다시 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앞으로 LDI가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죄를 버리고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서울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남용현 / 경제학부 대학원 10 (010-7770-8103)

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땀 흘리며 함께 했던 스포츠 교제도 오히려 큰 활력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군요. 변함없이 저희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배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경환 / 화학생물공학부 (010-9558-0393)  
kkh0109@snu.ac.kr

에 모임을 가져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기에도 화요청년예배, 목요정기모임, 노방찬양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녕 / 재료공학부 07 (010-2765- 6005)  
학생회관 423호  
seoulcam.cyworld.com

■ CCC

살롬!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가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대CCC 형제 자매들은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마음껏 드러내왔습니다. 종강의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Be a Fireseed!"라는 주제로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국내 280개 캠퍼스와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필리핀 중국 등 해외에서 청년대학생들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김준근목사님을 이어 세상 모든 곳에서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마치자마자 서울대CCC는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서산에서 거지전도순례를 이어 가졌습니다. 이 순례의 걸음에 LA KCCC에

■ 한사랑

한사랑 선교회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주제로 8/2-4 하비스트 캠프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탄식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문화속(붉은 악마, 동성애, 낙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

■ JOY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JOY는 바로 저 말씀대로 Jesus 1st(예수님을 첫째로), Others 2nd(이웃을 둘째로), You 3rd(나 자신을 마지막에)의 JOY sprit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캠퍼스의 크리스천들이 모인 유쾌한 공동체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매주 목요일 4시 30분마다 학교에서 방학 중 모임이 있었고, CAPSULE(Care And Practice Saving Unlive Life)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금 11시에 동아리방에서 이루어지는 돌파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10일에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레알 복음, 종이 밖으로 걸어

서 온 7명의 학생들과 함께 10여명씩 세 지역으로 나누어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잠잘 곳과 먹을 것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채 사영리를 전했습니다.

7월 중에는 세상 모든 곳에서 불씨가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몽골과 일본으로 단기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약 10여명의 학생들이 2주간 선교지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사영리를 읽어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8월 말에는 '순장리트릿'과 '대표단리트릿' 시간을 통해 새 학기의 삶을 준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새 학기에도 서울대 복음화의 불씨로 살기를 소망하는 순장, 순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서울대에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김진관 / 농산업교육과 04 (016-407-9913)  
임수영 / 심리 05 (010-5758-1065)  
http://snuccc.cyworld.com

정과 교육에 무너진 권위를 회개하며 마음(그리스도인의 탐심과 욕심)의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죄로 인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회개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절대 신앙의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강이 캠퍼스 영혼들에게 막힘이 없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2학기를 기대합니다.

학관 421호  
박승성 간사 / 010-8428-6128

나오다'라는 주제로 전국 JOY 여름수양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7월 26~29일에는 전주로 국내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새 학기에도 변함없이 정기모임이 학교에서 있습니다. 관악에서는 매주 목요일 4시 30분부터 학교에서 JFM(Jesus First Meeting)이 있고, 6시부터 OSM(Others Second Meeting)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로마서, 마태복음, 느헤미야, 다니엘 등을 공부하는 CAPSULE 모임이 있습니다. 매일 8시에는 돌파기도회가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성령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JOYer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회관 422호  
성연국 / 기계09 (010-9413-5138)  
현지윤 / 기약09 (010-8339-6918)  
유쾌한 S-JOY  
http://club.cyworld.com/snujoy